공동체 소식

연중 제33주일

주 하느님,
저희를 도와주시어 언제나 모든 선의 근원이신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며 완전하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위령성월 안내
- 위령성월은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며 천국에서 하느님과 함께 하시길 기도하는 성월입니다. 또한 이미 세상을 떠난 부모, 친지, 은인들과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연옥 영혼을 위해 정성껏 미사를 봉헌하는 성월입니다.

▣ 세계 가난한 이의 날 및 Thanksgiving Day 안내
- 세계 가난한 이의 날
  (게시판 한,영 교황님 담화문 참조)
- 식사 후 평신도 협의회 있습니다.
- 20일(화)~22일(목) 평일미사 없습니다.

▣ 그리스도왕 대축일 안내
- 25일(일)은 그리스도왕 대축일이며 교회력으로 나해(B)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 교무금 완납해 주십시오.
- 신앙생활 봉헌서와 안내서를 받으시고 가족이 함께 상의하시어 대림 3주까지 "성당봉헌용"을 봉헌해 주십시오

▣ 복사단 모임 안내
- 25일(일) 미사와 식사 후 복사단 모임 있습니다.

▣ 전례 봉사자 모집 안내
- 독서, 해설, 복사 전례 봉사자 모집합니다.
- 전례부에 문의 바랍니다.

▣ 애찬 봉사자 모집
- 매 주일 봉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형제 ,자매님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 전례 성가

	시 작	예 물	성 체	파 견
금 주	41	211	169	232
차 주	73	221	179	73

▣ 주일미사 복사

	향복사	시종복사
금 주	정예찬(미카엘)	차민서(임마누엘) 김정훈(로베르또)
차 주	고평원(프란치스코)	문예나(요안나) 김정빈(바오로)

▣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 주	박태주 로마노	감영진(라파엘)
		한춘희(라파엘라)
차 주	최은미 아녜스	박태주(로마노)
		김명희(리드비나)

▣ 애찬 봉사자

금 주	8조: 김명희, 박계숙, 박동희
차 주	그리스도왕 대축일, 행사 1조

▣ 헌금 봉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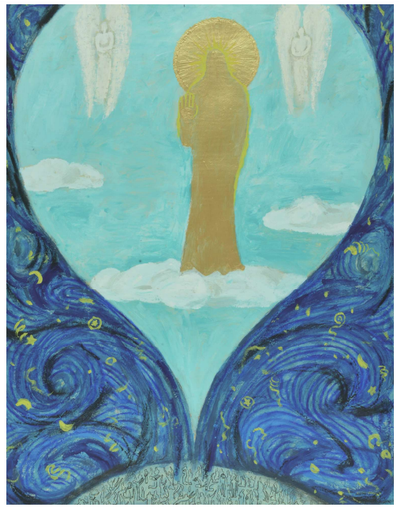
금 주	홍순익 마르띠노, 김대연 요셉
차 주	감영진 라파엘, 조진환 베드로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수요일: 7:30 PM
목 요 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주임신부 박종수 펠릭스 pjsfelix@gmail.com
회 장 이우석 프란치스코 M: 816.616.0033
재 무 김병철 베네딕도 M: 913.710.0770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주보 편집 : 조진환 베드로 jinhwan.jo@gmail.com



오늘의 전례

오늘은 연중 제33주일이며 세계 가난한 이의 날입니다. 주 하느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보살피시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어 잠에서 다시 깨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열심히 사랑을 실천하며,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시어 뽑힌 이들을 모두 주님 나라에 모아 주시기를 기다립시다.

그림 묵상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은 '주님의 날'로서, 세상이 완성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권능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언제일지 모르는 종말을 예고하시며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촉구하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악을 이겨내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종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의 시작입니다.

정미연 소화데레사 | 화가

제 1 독 서 : 다니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12,1-3
<그 때에 네 백성은 구원을 받으리라.>

화 답 송 :

◎ 주님, 저를 지켜 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 주님은 제 몫의 유산, 저의 잔. 당신이 제 운명의 제비를 쥐고 계시나이다. 언제나 제가 주님을 모시어, 당신이 제 오른쪽에 계시니 저는 흔들리지 않으리이다. ◎
○ 제 마음 기뻐하고 제 영혼 뛰노니, 제 육신도 편안히 쉬리이다. 당신은 제 영혼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구렁을 보지 않게 하시나이다. ◎
○ 당신이 저에게 생명의 길 가르치시니, 당신 얼굴 뵈오며 기쁨에 넘치고, 당신 오른쪽에서 길이 평안하리이다. ◎

제 2 독 서 :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10,11-14.18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의 예물로 거룩해지는 이들을 영구히 완전하게 해 주셨습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너희는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 알렐루야.

복 음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3,24-32
<사람의 아들은 자기가 선택한 이들을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생명의 말씀 오늘은 나에게, 내일은 너에게

어느덧 11월입니다. 화려했던 단풍이 지고 무채색의 겨울이 대지를 엄습하기 시작하는 이때를 교회는 위령성월로 정하여 우리가 죽음의 의미를 진지하게 성찰하고 죽음의 심연 너머에 찬란히 빛나는 부활의 희망을 바라보도록 초대합니다.

어느 옛 무덤의 묘비에 이런 경구가 적혀있다고 합니다. "Hodie mihi, cras tibi." 번역을 하자면 "오늘은 나에게, 내일은 너에게"라는 말이 되겠지요. 자신을 애도하기 위해 찾아온 이에게 망자가 전하는 마지막 한 마디는 이토록 처연합니다. 죽음이 오늘은 나를 찾아와 내가 이렇게 차디찬 땅속에 누워있지만 이제 머잖아 이 자리가 자네 몫이 될 터이니 마음 준비 단단히 하라고 나지막이 건네는 망자의 충고는, 우리네 삶이 늘상 죽음을 마주하고 있음을 새삼 깨닫게 해 줍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세상 종말에 대해 가르치시며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시듯, 우리의 죽음도 그렇게 부지불식간에, 하지만 예외 없이 우리 각자를 찾아올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에, 우리의 삶은 늘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란, 죽음의 문을 지나 마침내 뵈옵게 될 하느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이승의 재물을 모으는 데에만 급급했던 부자가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목숨을 되찾아 갈 것이다."(루카 12,20)라는 하느님의 추상같은 한 마디에 덧없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야 했듯이, 하느님과의 만남을 준비하지 않은 이의 마지막은 황망하고 허무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느님을 뵈올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을까요? 루카 복음에 나오는 '약은 집사의 비유'(루카 16,1-8)에서 그 답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비유에서 집사는,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여 꾸지람을 듣자, 주인에게 빈털터리로 쫓겨나지 않을까 걱정하게 됩니다. 이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 그가 택한 방법은, 주인의 빚 문서를 조작하여 빚진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이로써 사람들의 호의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쫓겨나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신세를 질 수 있게 말이죠. 어떻게 보면 자신의 불의함을 또 다른 불의로 덮은 셈이지만, 뜻밖에도 주인은 오히려 이 집사의 약삭빠름을 칭찬합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세계의 관리자, 곧 집사인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자신의 능력과 지위, 재물을 사용하여 곤경 중에 있는 다른 형제자매들을 돕는 것. 덧없는 재물을 자신만을 위해 모으고 쌓기보다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다하여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돕고 그들과 가진 것을 나누는 삶이야말로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바람직한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는 만큼 하느님을 향한 희망은 내 안에서 커집니다.

최규하 다니엘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그림으로 보는 복음묵상

글을 읽을 때는
행간의 의미를 읽어야 한다.
선물을 받을 때는
마음의 의미를 읽어야 한다.
표징을 받았을 때는
그 안의 의미를 읽어야 한다.
글자만 읽고, 물건만 받고, 표징만 찾으면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사람의 아들이 문 가까이 온 줄 알아라.(마르 13,29)

임의준 신부 | 서울대교구 직장사목부 담당

말씀의 이삭 새로운 도전

꿈꾸면서 준비하던 것이 얼마 전인 것 같은데, 올림픽을 마무리한 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이번 2018 평창올림픽은 저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어렸을 때 처음 시작한 종목인 쇼트트랙을 10년 넘도록 해왔고 또 직접 평가하기에는 많이 부족하고 쑥스럽지만, 나름대로 최고의 결과와 괜찮은 실력으로 해내 왔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 자신에게도 두렵고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매일매일 고민에 고민을 했고, 오전에는 포기했다가 오후가 되면 다시금 '도전하자'라고 마음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저를 아껴주시는 분들 중 절반 이상이 반대했지만 그럼에도 저는 전향(쇼트트랙에서 스피드스케이팅으로 종목을 바꿈)을 선택했습니다.

2014년 소치올림픽 이후 종목을 전향했을 때만 하더라도 저에게는 그렇게 큰 목표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새로 도전하는 스피드스케이팅으로 제가 평창올림픽을 간다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바에는 그냥 은퇴하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내야지' 하는 마음보다는 새로운 종목에 도전하기로 한 선택 자체에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스케이트 선수로 생활하면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상처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새로운 종목에 도전하게 된 이유는 남들과는 다른 길을 가보고 싶었고, 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싶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바닥에서부터 다시 준비하는 과정 중에 주님은 정말 큰 버팀목과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종목을 바꾸고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후회하는 마음이 가득했고, 굳이 새로운 도전을 선택했던 저 자신을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언제든, 누구든 겪어야 하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 안에서 기도로 답을 얻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시 돌이켜 생각해보면 하느님께 기도를 드릴 때나 미사를 볼 때, 하느님께 대한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한 깊은 믿음을 갖고 있지 못했던 건 아닌가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도전의 시간을 보내고, 그 시간 사이사이에 기도와 미사의 시간을 갖고 답을 찾아보고 노력하는 과정 안에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당장 모든 일과 어려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힘들고 지칠 때 하느님은 저에게 유일하고 가장 큰 안식처가 되어주셨습니다.

저의 짧은 생각일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은 실수와 실패를 반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그분께 대한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자 한다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도 기도하는 것을, 하느님을 만나려고 노력하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박승희 리디아
前 쇼트트랙·스피스 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

교리상식

교적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찾나요?

교적敎籍은 '공소인명록'이 발전하여 생긴 일종의 신자 신앙생활 기록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적에는 신자 개인의 가족관계, 신상명세, 세례·견진·판공·혼인 등의 성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적은 가구별로 작성되어 있어 한 개인만이 아니라 가족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교적은 교회의 호적戶籍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가족 단위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혼자만 신자라면 교적에는 내 것만 기록됩니다. 주변에 교적을 찾고 있는 분이 있다면 우선 다니던 본당에 문의하라고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글_「교회상식 속풀이」 | 바오로딸 발행